인권정보자료실
Md1.10

2002 초등학생 장애체험 보고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설립: 1987년 12월 3일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

정책연구사업: 장애우 관련 제반 법과 제도 연구,
장애우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교육사업: 장애우아카데미 운영, 장애우 관련 자료실
운영, 장애우 관련 자료집 출판
특별위원회: 의료특별위원회, 여성장애우 특별위원회
인권옹호사업: 장애우 인권 및 법률과 생활 상담
전문위원회 운영: 법, 교육, 직업, 의료

부설기관

장애우 관련 전문잡지 월간 함께걸음 발행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영30어린이집 운영
장애우 직업센터 운영
장애우 인권센터 운영
장애우 문화센터 운영
장애우 인권센터 운영
장애우 정책실 운영

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회원가입안내

회원자격: 월3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분

보내주신 회비는 연구소 운영과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등 부설기관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회원은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되며, 연구소가 발행하는 함께걸음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와 50조에 의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Md1.10

2002
초등학생 장애체험 보고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友)'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우리들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목차 .....

발간사
1. 연구소 현황
2. 사업보고서
3. 평가보고서
4. 외국의 장애체험 교육 방법 및 절차
5. 일일교사 강의안
6. 소감문
7. 사진 속의 우리들

2002년 초등학생 장애체험을 끝내며....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얼마전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동료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급한 전화연락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 계단 한 가운데에 서있는 리프트 위에 전동휠체어를 탄 직원을 보았습니다. 순간 아찔한 기분과 함께 화가 났습니다. 역무원은 한 명뿐이었고 전동휠체어를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119 대원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그 간사는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장애우인식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토론과 캠페인, 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간에 서버린 리프트처럼 아직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고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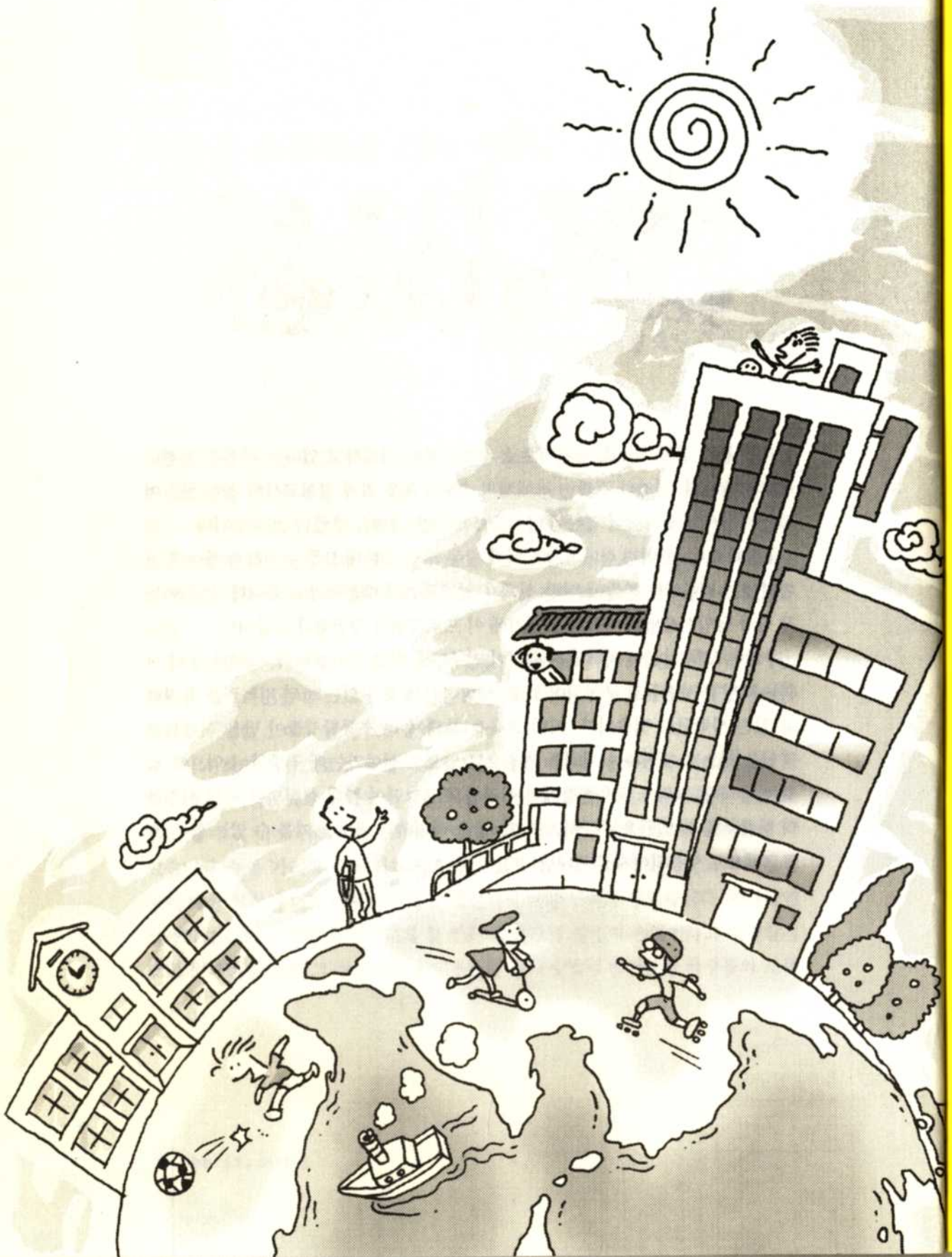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순회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칫 초등학생들에게 오히려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이 살맛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불편해서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장애체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모듬

발표를 통해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장애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체험 순회교육을 위해 일일교사에 참여했던 여러 장애당사자 교사들의 열정이 아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장난기가 심하게 발동될 법도 한데 모두 진지하게 참여를 한 이면에는 진행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각 학급 담임선생님의 이해가 있었기에 이 프로그램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이 전부인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 반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초등학생들이 남을 이해하는 경험을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귀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지길 기대합니다.

2002년 10월



연구소 현황

1.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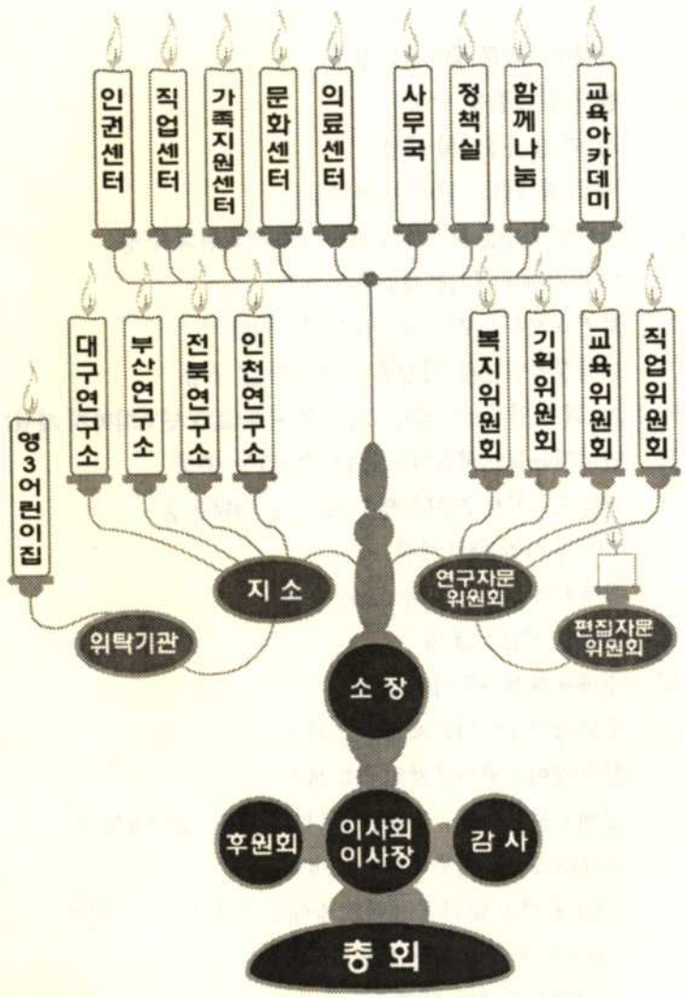
장애우에 대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장애우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서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의 실현을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연혁

1987. 12.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988. 3. 20	월간 '함께걸음' 발행
1991. 9. 17	제1기 장애우대학 개설
1991. 12.	미국 '장애인의 권리' 번역 출간
1992. 1. 4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993. 8	대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소
1994. 12. 13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
1994. 12. 15	여성장애인분과 '빗장을 여는 사람들' 구성
1995. 8. 28-31	제1회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주최(2000년 6회까지 개최)
1995. 12.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인권상' 수상
1996. 2. 7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영3어린이집' 위탁운영
1996. 4. 1	'장애우직업센터' 개원
1997. 5. 1	장애인 주간보호(Day-Care) 운영
1997. 10. 7	장애인 진료소 운영
1998. 10.-12.	'장애우실직자모임터' 운영
1999. 7	부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소
1999. 12	전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소
2000.	'장애우문화센터', '장애우인권센터' 개원, 장애체험 실시
2001. 4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소
2001. 7~8	'2001 휴가철 맞이 톨게이트 장애우인권기금모금' 활동
2001. 10	1588-0420 장애인의 전화 개통
2001. 12	'장애우의료센터' 개원
2002. 2	월드컵 개최 도시 10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초등학생 장애체험 서울지역 5개교, 지방 8개교

3. 조직 및 직원체계

■조직구성



4.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87년 12월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제도 개선과 시민을 향한 인식 개선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상담과 소송을 통한 장애우의 인권 찾기에 주력했으며, 시민이 장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모든 활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와 특별한 욕구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장애우와 그 가족,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새로운 모형, 다시 말해 '시민적 권리'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은 '인권' 이라는 화두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떤 차별에도 반대하며, 또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는 머나먼 길이 될 것입니다

○ **법 · 제도 정책 연구 및 조사사업**

- 장애우 참정권 확보를 위한 4 · 13 총선대비 사업(2000년)
- 2000년 지방선거 대비 사업 전개(장애우 유권자단 운영)
- 2000년 8 · 8 보궐선거시 전국 투표소 실태 조사 실시
- 장애인기초연금 확보 운동
- 장애아동 무상교육 확산 운동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권 운동
- 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전달체계 연구
-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무장벽공간 만들기' 운동
- 특수교육 보조교사제 도입 운동
- 장애우 인권지표개발(2002. 진행중)
-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운동(2002. 진행중)
- 장애인 인권관련 문허조사를 통한 인권보장방안 연구(2002. 진행중)

○ **시민교육사업: 장애우대학, 장애우법률학교, 생활환경 아카데미, 장애체험 교육 등 장애우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기 위한 시민교육**

○ **인권사업 : 각종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공익소송 지원 등**

- 장애우인권센터 개원식(2000. 12. 9)
- 장애우 인권지기, 상담지기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장애우 인권확보 운동
- 장애우 왜 인권인가 발간
- 남편 살해한 매맞는 여성 유순자씨 구명운동
- 강원도 정신지체인 'k' 양 성폭행 관련 연대 사업 추진(연대사업)
- 서울교육대학 김훈태 입학 거부 관련 소송
- 연령차별 철폐 운동 전개
- 사전신체검사 철폐 운동 전개
- 제천시 보건소장 이희원 승진차별 철폐
- 인권소식지 '목소리 높여' 발간(주 1회)

○ **의료사업**

- 무료진료활동(격주 1회)
- 장애우보건의료학교 운영
- 수서지역사회재활(CBR)협의회 운영
- 소식지 '사람사이'(월 1회) 발간
- 장애우보건의료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2.10.31)

○ **출판사업**

- 장애우전문 월간지 '함께걸음' 발간
- 각종 장애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 매년 1회 동화책 발간(현재 5회까지 발간) 등 각종 출판물 발간

○ **장애우직업센터 운영 및 사업장 운동**

- 함께나눔 재활용사업장 개원(2000)
- 부천 세차장 개원(2000)
- 부천세차창 개원(2000)
- 함께걸음 서산 기러기 농장 개원(2001. 7)
- 실직장애우 가정지원 사업
- 장애우직업탐색 캠프 진행

○ **장애우가족지원센터 운영**

- 주간보호 실시
- 중증 장애우 유료도우미 지원사업 진행(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형제캠프, 생활캠프, 가족캠프 진행(매년 1회)
- 부모교육
- 소식지 '가족' 발간(월 1회)

○ **장애우 문화센터 운영: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장애우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실시**

- 장애우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1%나눔 운동 전개
- 각종 장애우 문화프로그램 진행(매월 1회 레져버디, 사진전 등 진행)
- 장애우문화향유권확보를 위한 실태조사(2000)
- 문화지킴이단 운영
- 장애우방송모니터 교육
- 각종 문화관련 소모임 지원

2002 초등학교 장애체험

사업보고서

1. 사업명

: 2002 장애체험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 만들기

- 초등학교 장애체험 전국 순회교육사업 (6학년을 대상으로) -

2. 사업목적

일반 초등학생들이 직접 장애체험과 주변의 교육환경을 점검하면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그리고 함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장애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깨닫게 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를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소는 2002년도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의 일환으로써 초등학교 장애체험 순회교육을 서울지역의 5개 초등학교와 인천 2개교, 전주 2개교, 대구 2개교, 부산 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500명과 자원활동가 150명 등 총 67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은 아동기부터 장애인을 접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몰이해는 편의시설이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점검과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일선학교에서 장애체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전문성 결여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장애체험이 널리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체험에 필요한 교안과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춤과 동시에 장애체험 교사를 발굴 교육 양성하여 장애체험의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한다.

○ 사업 목적

-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무장벽 공간에 대한 인식 확대
- 장애체험을 지도할 일일 교사 발굴 및 교육
- 장애체험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및 교육방법의 전국적 확산

3. 사업기간

- 2002년 3월 ~ 2002년 10월

4. 사업추진 내용

1) 사업대상

- 서울시 5개교, 인천 2개교, 전주 2개교, 대구 2개교, 부산 2개교 등,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13개교, 총 13개 학급

2) 참가인원수

- 초등학생 500여명, 자원활동가 150여명, 교사 20여명 등, 총 670여명

3) 사업내용

(1) 사전준비

- 교육인적자원부에 연락하여 취지전달 및 서울 · 인천 · 전주 · 대구 · 부산 총 13개 학교섭외
- 자원활동가 섭외 및 교육

(2) 장애체험 일일교사 교육

· 실시기간 : 2002년 5월 - 2002년 9월
· 참가인원 : 약 30명(일일교사 20명, 자원활동가7명, 직원 3명)
· 장 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 교육 내용 :

회	교 육 내 용
1회	장애인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 3회	수업진행 및 교육방식에 대한 논의
4회	인권교육으로서의 장애체험 교육 이해
5회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한 이해
6회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

(3) 자원활동가 교육

· 실시기간 : 2002년 6월 - 2002년 9월
· 참가인원 : 총 50명(자원활동가 45명, 직원 5명)
· 장 소 :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 교육 내용 :

회	교 육 내 용
1회	자원봉사의 이해
2, 3회	효과적인 자원활동가의 운영과 관리, 자원활동가의 역할
4회	인권교육으로서의 장애체험 교육 이해
5회	장애 유형의 이해와 보조구 사용
6회	자원활동가로서의 원활한 수업 진행 방법과 내용의 논의

· 자원활동 안내 소책자 제작
- 제작시기 : 2002년 4월 - 8월
- 발간시기 : 2002년 7월
- 내 용 : 자원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장애체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
장애인을 도울 때 기본적인 에티켓과 요령
장애체험시 참여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전달
- 소책자 수량: 40쪽, 총 380부
- 활용방안 : 장애체험 행사에 참여한 자원활동가 및 일선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
일반 교육기관, 복지단체, 복지관 등에 배포하여 장애체험 교육 지침서로 활용
- 배 포 처 : 장애체험 참여 자원활동가, 학부모, 일선교사
교육청, 장애인 복지단체 및 복지기관 등

(4) 장애체험

· 실시 기간 : 2002년 5월 - 10월
· 참여 대상 학교 : 총 13 개교
(서울 5개교, 인천 2개교, 대구 2개교, 부산 2개교, 전주 2개교)

· 장애체험 사전답사

- 학생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1~2주전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체험할 장소를 점검한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와의 협력을 구한다.
- 장애체험교육의 취지를 해당학교에 전달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다.
- 현수막을 미리 걸어 행사의 취지와 분위기를 이루어 나간다.

(5) 장애체험 교육방법

① 장애우 바로 이해하기

㉠ 장소 : 해당학교 학급 및 강당, 또는 1층 교실

㉡ 시간 : 약 40분(체험전 1교시)

㉢ 교육강사 : 장애우 일일교사(교사교육을 받은 장애인)

㉣ 준비물 :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교안, 휠체어, 흰지팡이, 안대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 앰프 및 스피커, 1일교사가 마실 음료수

㉤ 진행방법

ⓐ 담당간사가 기관 및 장애체험의 의의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 일일교사가 장애의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하고, 잘못된 인식 · 편견 등으로 인하여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담당간사나 일일교사가 장애체험시 사용하게 될 보장구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다.

② 장애체험

㉠ 장소 : 학교 내부시설 및 주변의 통학로, 은행 · 슈퍼마켓 등 생활시설, 관공서 등

㉡ 시간 : 약 40분-50분

㉢ 인원 : 1개 학급 전체

㉣ 준비물 : 휠체어, 흰지팡이, 안대, 체험시 소요비용, 안내문, 설문지

㉤ 진행방법

ⓐ 학생들을 휠체어 체험과 시각장애 체험으로 나누어 팀구성을 한다. 자원봉사자는 체험시 소요될 비용을 담당간사로부터 미리 받아둔다.

ⓑ 각 팀을 다시 2인 1조로 구성한다. 2인중 1인은 장애인, 또다른 1인은 도우미가 된다. 일정지점에서 역할을 교대한다.

ⓒ 조편성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안내문과 휠체어 또는 안대와 흰지팡이를 나누어 준다.

ⓓ 자원봉사자는 각 조에 배치되어 학생의 안전 및 장애체험을 지도한다.

ⓔ 장애체험은 안내문의 내용대로 실시되며, 장애인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 혼자 힘으로 체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우미는 위험한 턱이나, 코너를 돌 때 도움을 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휠체어를 끌어주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체험 과정 중에 주변의 환경실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점검 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도록 한다.

ⓖ 학생들이 체험도구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진지하게 임하도록 한다.

ⓗ 체험 중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몰려다니지 않도록 조와 조 사이의 시간과 간격을 조절한다.

ⓘ 체험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면 체험도구와 소요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회수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장애체험 내용

ⓐ 학교 내부시설의 편리성을 알아보고, 통학로의 안정성을 점검한다.

ⓑ 장애체험을 통해, 평소 느끼지 못하던 여러 감각기관의 기능과 몸의 소중함을 느낀다.

ⓒ 체험을 통해 보장구의 중요성과 편리한 시설공간에 대한 이해력을 기른다.

ⓓ 체험을 통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③ 종합토의

㉠ 장소 : 해당학교 학급 및 강당, 또는 1층 교실

㉡ 시간 : 약 40분

㉢ 인원 : 장애체험에 참가한 학생들, 교사, 자원봉사자, 일일교사

㉣ 준비물 : 전지, 매직, 필기도구, 소감문용지

㉤ 진행방법

ⓐ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종합토의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원봉사자는 각 조에 들어가 모든 학생들이 고루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토의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각 조의 조원이 나와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다.

ⓒ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과 느낀점을 나누도록 한다.

ⓓ 발표가 끝나면 일일교사와 담당간사가 총평을 한다.

ⓔ 기자재와 현수막 등을 수거하고 마무리를 한다.

(6) 중간평가

· 일시 : 2002. 10. 5 ~ 10. 6(토 · 일요일)

· 장소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팀장

· 참가인원 : 총 40명(장애인교사, 자원활동가, 직원 등)

· 내 용 :

- 교육 관계자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장애체험을 실시)
- 자원활동가 등의 단합 및 올바른 장애체험 참여 도모
- 하반기 장애체험 추진 계획을 점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진 행
오후 ~ 4 : 00	의정부 북부역 집결	
~ 5 : 30	이동 장애체험	오영철 (숙소에서 환영식까지 준비)
5 : 30 ~ 6 : 00	상공회의소 도착, 접수	
6 : 00 ~ 7 : 00	저녁식사	
7 : 10 ~ 8 : 30	장애우운동사 돌아보기	신용호 (사무국장)
8 : 40 ~ 9 : 00	장애우란?	김정열 (소장)
9 : 00 ~ 10 : 30	미니올림픽	오영철, 신윤식
10 : 30 ~ 11 : 00	캠프화이어	신윤식
11 : 00 ~	뒷풀이	(우천시 실내에서)
취 침		
오전8시 ~ 9 : 00	아침식사	
9 : 30 ~ 11 : 00	관계프로그램	신윤식
11 : 00 ~	허브농장으로	

(7) 최종평가

· 실시기간 : 2002년 10월 26일 토요일

· 장 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참여 대상 및 인원 : 총 60여명

(행사 참여 자원활동가, 일선교사, 초등학생 및 학부모,
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 종사자 등)

· 내 용 :

- 초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환경과 학교주변의 환경실태에 대하여 발표한다.
- 학생들의 과제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 모든 행사내용의 결과물들을 모아 자료물로 제작한다.

· 최종결과자료집

- 제작 시기 : 2002년 10월
- 발간 시기 : 2002년 10월 26일 이전
- 자료집 부수 : 총 350부
- 자료집 배포처: 최종평가회 참여자, 일선 교육청, 장애인 복지 단체 및 기관, 특수교육 관련 대학 및 학교
- 사업 경과 보고서
- 수업 진행 방식 및 교사에 대한 평가
- 참여 초등학생의 감상문, 사진, 그림 등 수록

5. 서울지역

학 교	사 업 내 용	장애우 일일교사
방일 초등 학교	· 일 시 : 2002년 9월 11일(수) · 체험장소 : 방일초등학교 주변도로 및 상가 · 참가대상 : 방일초등학교 6학년 1반 · 참가인원 : 초등학생 37명, 일일교사, 자원활동가, 학부모 25명 (총 62명) · 체험내용 : 각 10명씩 4개조로 나눠 지체장애 (휠체어, 목발), 시각장애체험	왕태윤(휠체어), 정종대(휠체어)
대곡 초등 학교	· 일 시 : 2002년 9월 13일(금) · 체험장소 : 대곡초등학교 주변도로 및 상가, 은행 관공서 · 참가대상 : 대곡초등학교 6학년 1반 · 참가인원 : 초등학생 42명, 일일교사, 자원활동가20명 (총 62명) · 체험내용 : 각 10명씩 4개조로 나눠 지체장애 (휠체어, 목발), 시각장애체험	조병옥(휠체어), 이진숙(휠체어)

학 교	사 업 내 용	장애우 일일교사
상계 초등 학교	· 일 시 : 2002년 9월 23일(월) · 체험장소 : 상계초등학교 주변도로 및 상가, 육교 · 참가대상 : 상계초등학교 6학년 2반 · 참가인원 : 초등학생 32명, 일일교사, 자원활동가 20명 (총 52명) · 체험내용 : 각 10명씩 4개조로 나눠 지체장애 (휠체어, 목발), 시각장애체험	구혜정(휠체어), 강대수(휠체어)
이수 초등 학교	· 일 시 : 2002년 9월 25일(수) · 체험장소 : 이수초등학교 주변도로 및 상가 · 참가대상 : 이수초등학교 6학년 3반 · 참가인원 : 초등학생 38명, 일일교사, 자원활동가20명 (총 58명) · 체험내용 : 각 10명씩 4개조로 나눠 지체장애 (휠체어, 목발), 시각장애체험	이덕만(휠체어), 이창순(휠체어)
도성 초등 학교	· 일 시 : 2002년 9월 27일(금) · 체험장소 : 도성초등학교 주변도로 및 상가, 은행, 대형마트 · 참가대상 : 도성초등학교 6학년 1반 · 참가인원 : 초등학생 39명, 일일교사, 자원활동가, 학부모 30명 (총 69명) · 체험내용 : 각 10명씩 4개조로 나눠 지체장애 (휠체어, 목발), 시각장애체험	류경돈(휠체어), 한강희(휠체어)

6. 인천지역

1) 참가학교 : 인천선학초등학교

· 일 시 : 2002년 7월 13일(토) 9:00~12:30
· 장 소 : 주변환경(일상적인 등 · 하교길)
· 목 적 : 장애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식개선과 환경조성
· 목 표
- 장애체험을 통해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우의 어려움을 이해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환경조성, 원조방법을 학생들에게 인식
-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태도 개선

· 참가인원 : 6학년 5반 학생 40명, 인하대학교 엘레펀트 동아리 회원 10명,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교통봉사회 10명, 일일교사 2명, 수화통역사 1명,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연구실무위원 등 7명
· 체 험 물 : 휠체어 10대, 목발 10조, 흰지팡이 10개, 숙면안대 40개, 마스크 10개, 실리콘 귀마개 10개, 삼각건, 부목 및 붕대 10조

<수업 전> 8:20-9:00

* 기념품전달(라운드 티셔츠 제작 '초등학교 장애체험 순회교육' 참여학생 유니폼으로 배부)
* 자원활동가 사전교육 및 체험학생 조별편성에 따른 사전 배치구성
* 장애체험장비 정비 정돈

<수업시> 9:00-10:00

(1) 도입

* 수업시간 이전에 전체 학급을 5개조 구성하고 조별 장애체험장비 배부
* 연구소 실무진 인사말, 학교장 훈화
* 장애체험에 참여한 주요인사 소개 및 일일교사 인사

(2) 전개(일일교사 진행)

* 청각 일일교사 : 김필자(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이상국(인천농아인협회)
* 시각 일일교사 : 이애란(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 지체 일일교사 : 김만융(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교통봉사회 고문)
- 각 일일교사의 간단한 자기소개 및 자신의 장애영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장애의 개념, 원인 알기, 일상생활의 불편은 있지만 인간으로서 비장애우와 다른 점은 없다.
- 질문내용을 모니터(프로젝션)로 문자전달 -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일일교사의 답변 및 보조용구 활용법 등을 설명(휠체어, 흰지팡이, 유도블럭, 점자블럭, 점자시계, 점판, 점자책 등) 청각장애 일일교사 통역없이 수화로 자기소개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오해의 소지, 언어소통의 어려움, 보조도구(예: 진동시계, 문자 단말기) 사용을 설명, 수화통역사의 통역으로 이해

(3) 정리 10:00-11:30

-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이동 A, B, C, D, E 코스(팀)별 체험장비와 체험코스 안내도 배부, 코스별로 하여 지체(휠체어, 목발), 시각, 청각을 동시 장애체험으로 옆의 친구가 하는 다른 유형의 간접 장애체험을 유도함
- 코스별 300M 거리로 2층 영어학원 가보기, 약국에서 밴드 사보기, 은행에서 리플렛 가져오기, 화장실 이용해 보기, 재래시장에 물건 사보기, 프렌차이즈 점에서 메뉴판 가져오기, 택시 타보기 등
- 학급 전체 40명 선학 지하철역 견학(휠체어 리프트 직접 이용해 보기), 리프트의 위험성 및 호출의 불편, 시간소비 등을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 중국음식점에서 학생전체 안대를 가리고 짜장면 먹어보기(중식제공)

시각체험

- 시각장애우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을 가지고 사는지,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피력

(4) 평가 및 정리 11:30-12:30

-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학로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평가
  - ·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와 정리
  - · 장애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의 중요성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서로를 이해하려는 심리적, 인지적 태도 강조
  - · 칭찬, 수고했다는 격려와 참여인원 기념 촬영

2) 참가학교 : 인천신흥초등학교

· 주 제 : 장애체험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 일 시 : 2002년 9월 28일(토요일) 9:00 - 13:00
· 장 소 : 인천 신흥초등학교의 실내 및 주변환경

- 일일교사교육

일시: 2002년 9월 9일 오후 2시
장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실
담당: 홍연표, 임홍묵

- 자원활동가 1차 교육

일시: 2002년 9월 19일 오후 6시
장소: 인천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담당: 박용빈, 임홍묵

- 자원활동가 2차교육

일시: 2002년 9월 26일 오후 6시
장소: 인천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담당: 홍연표, 이상국, 이헌동

- 장애체험 참여인원 : 인천 신흥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 44명
  인하대학교 인천사랑회 회원 8명, 장애우대학 14명,
  연구소 실무진 및 정책연구위원 8명, 일일교사 3명
  (총 77명)
- 장애체험물: 휠체어 12개, 부목, 붕대, 목발 각11조, 케인 22개, 안대 22개,
  자장면(시각체험) 전체학생 제공

(1) 도입

(2) 전개(실내 장애체험교육)

* 장애에 대한 일반적 교육: 박용빈(인천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회 고문)
  - 장애유형별 소개와 장애우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올바른 이해
* 청각 일일교사: 김필자(농아인 협회)
* 시각 일일교사: 문형상(인천광명원)
* 지체 일일교사: 이헌동(장애우대학)

(3) 정리 10:30-11:40

-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이동 A, B, C, D, E코스(팀)별 체험장비와 체험코스 안내도 배부, 코스별로 하여 지체(휠체어, 목발) 시각, 청각을 동시 장애체험으로 옆의 친구가 하는 다른 유형의 간접 장애체험을 유도함
- 코스별 400M 거리로 2층 영어 학원 가보기, 약국에서 밴드 사보기. 은행에서 저축안내서 가져오기, 건물2층 계단 및 화장실 이용해보기, 문방구 이용해보기, 학교 계단 이용해보기, 관광회사 방문하기

(4) 평가 및 정리 11:40-12:40

- 중국음식점(신성루)에서 학생전체 안대를 가리고 짜장면 먹어보기(중식제공)

평가서(소감문)작성 : 차주 월요일(30일)회수(김현정 교사 협조)

(5) 종료(간담회 및 중식) 13:~

장애체험에 참여한 자원활동가, 일일교사, 학급교사, 실무자의 간담회

7. 부산지역

사업명	장애체험 프로그램 참여 '일일교사 교육'
일 시	2002년 6월 3일 (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 소	(사) 부산장애우권익문연구소 회의실
인 원	* 신청인 -> 10명 · * 직원 -> 3명 계 -> 13명
내 용	* 사업 취지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이 경숙 간사)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박 용민 간사) * '장애인편의시설'은 무엇인가? (장 수호 실장) * 비디오 상영 '서른셋 소년 정만훈의 홀로서기' * 궁금한 점 · 기타 여러 가지 참고 사항들 (이경숙 간사)

사업명	장애체험 프로그램 참여 '자원활동가 교육'
일 시	2002년 6월 10일 (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 소	(사) 부산장애우권익문연구소 회의실
인 원	* 신청인 -> 35명 · * 직원 -> 3명 계 -> 38명
내 용	* 사업 취지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이 경숙 간사) * '장애인편의시설'은 무엇인가? (장 수호 실장) * 원활한 수업진행 및 이해와 체험도구 사용법(박 용민 간사) * 궁금한 점 · 기타 여러 가지 참고 사항들 (이 경숙 간사)

사업명	초등학교 장애체험 전국 순회교육 사업
일 시	2002년 6월 14일 (금)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002년 6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장 소	연천초등학교 6학년 6반 금양초등학교 6학년 5반
인 원	* 학생 : 40명 * 자활 : 20명 * 진행 : 5명 * 교사 : 2명 (담임, 일일교사) * 직원 : 3명 * 계 -> 70명
	* 학생 : 37명 * 자활 : 19명 * 진행 : 5명 * 교사 : 2명 (담임, 일일교사) * 직원 : 3명 * 계 : 66명
내 용	* 일일교사 : 최영아 (지체 1급) / 전연혜 (지체 1급) * 도입 수업 :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하는 시간 (장애우에 대한 생각 · 장애의 종류 · 체험도구 사용법 등) * 장애체험 수업 : 지체 · 시각, 2조로 나눠서 번갈아 가며 체험 (학생 2인과 자원 활동가 1인이 1조를 이룸) * 마무리 수업 : 체험 시,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하고 주제 별로 토론을 하게 한 후에 장애우와 함께 함을 인식시킨다. * 체험 수업 후, 한달 내에 과제물을 제출하게 한다.

사업명	초등학교 장애체험 전국 순회교육 사업 '자원활동가 평가회'
일 시	* 2002년 6월 14일 (금) 오전 1시 3시까지 * 2002년 6월 21일 (금) 오전 1시 3시까지 총 2회
장 소	(사) 부산장애우권익문연구소 회의실
인 원	* 1회 : 자활 20명 · 진행 5명 · 일일교사 1명 · 직원 3명 계:29명 * 2회 : 자활 19명 · 진행 5명 · 일일교사 1명 · 직원 3명 계:28명 ==> 총 : 57명
내 용	* 점심 식사 * 회의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자원활동가 교육 때와의 연계성과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일일교사의 수업진행 상에 대한 토의와 수렴

8. 대구지역

1) 1차 체험

· 일　시 : 2002년 5월 18일 (토)
· 장　소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대　상 : 대명초등학교 학생 6학년 학생
· 참가인원 : 초등학생 33명 / 학부모 5명 / 장애아동(발달장애) 10명
　　: 자원활동가 10명 / 직원 8명 (총 66명)
· 협조
　- 대구어린이큰잔치날준비위원회, 대명초등학교, 오디나보청기,
　성모의지, 대구시각장애인협의회,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남지역장애아부모협의회, 온누리 산악회,
　자원봉사 동아리 참빛, 대구미래 대학생, 영진전문대학생,
　경북기계공고학생, 대구대학생회, 조정준, 이상종

2) 2차 체험

· 일　시 : 2002년 10월 12일(토) 오후 1:30-5:00
· 장　소 : 대구도원초등학교
· 대　상 : 달서구 · 달성군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 참가인원 : 초등학생 49명/교사 7명/자원활동가 10명/직원 5명 (총 71명)
· 협조
　- 성모의지, 시각장애인복지협의회, 대구지역 전교조 달서구 · 달성군지회

3) 홍보 내용

· 리플렛 제작 : 주간행사 기간 배부
· 현수막 부착 : 장애체험, 차량부착

4) 체험교실 내용

1) 세부일정

(1) 1차 체험 : 2002년 5월 18일 (토)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50	전체 오리엔테이션	
09:50~10:20	기념식	인사말 : 김병하 이사장 어린이 헌장 낭독 : 서혜진 어린이
10:20~12:30	전시마당/장애체험관	전시마당(인물, 스포츠, 장애영역) 장애체험관(시각, 지체, 청각)
12:30~13:00	점심식사	
13:00~14:00	백일장	주제 : 내가 만난 장애우
14:00~15:00	통합한마당	진행자 : 극단 함께사는세상 송희정강사
15:00~16:00	뒷정리 및 평가회	

(2) 2차 체험 : 2002년 10월 12일 (토)

시　간	내　용	비　고
오후 1::30~2:00	오리엔테이션	담당 이헌규, 점심제공
2:00~4:30	전시마당 체험마당	인물 · 스포츠 · 장애영역소개 · 보장구소개 장애체험관 · 시각, 지체, 청각
4:30~5:00	마무리	

○ 전시마당 내용

사진전시	장애영역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인물	나폴레옹, 루스벨트, 베토벤, 스티븐호킹, 김기창, 넬슨, 셰익스피어, 밀턴, 세르반테스
	스포츠	보치아, 휠체어테니스,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펜싱, 수영, 스키, 아이스하키, 휠체어마라톤, 탁구
보장구	지체장애	휠체어, 목발, 의족, 의수
	시각장애	흰지팡이, 점자달력, 점자책, 점자우편번호책, 손목시계, 체온계, 투표보조용구, 주판, 로데오(놀이기구), 컴퓨터, 점자판
	청각장애	보청기 4개

○ 체험마당

지체장애	2명씩 짝을지어서 준비된 과정대로 수행(수행자가 활동하는동안 다른 한명은 수행을 돕는다. 단, 자원활동가는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돕되 과제수행에 개입 할 수 없다. ① 양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입으로 펜을 물어 이름을 쓴다. ② 한쪽 다리를 묶고 목발을 사용하여 정해진 코스를 따라 갔다가 반환점을 돌아온다.(반환점에서 짝과 역할을 바꾸어 실시) ③ 휠체어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돌아온다 (한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한사람은 밀어주는 활동으로 반환점에서 교대하여 실시) ④ 처음 자신의 이름을 쓴 자리로 돌아와 발가락으로 지시된 도형을 따라 그려본다.
시각장애	① 안대로 눈을 가리고 2명이 짝을 지어 정해진 코스(경사로, 계단)를 걸어와 의자에 앉는다. ② 양말신기, 옷입기, 지퍼와 단추 잠그기등을 수행한다. ③ 지팡이 짚는법을 익힌후, 지팡이를 짚고 유도매트가 깔린 정해진 코스를 걸어온다. ④ 탁자에 놓인 주전자를 찾아 컵의 물을 따라 마신 다음 안대를 벗고 확인한다. ⑤ 안경(약시안경)을 끼고 정해진 코스를 걸어본 다음, 칸이 그어진 공책에 정해진 지시문장을 적는다. ⑥ 마지막으로 준비된 점자를 만지고 느껴본다.
청각·언어장애	각 활동은 2인1조로 짝을 지어 실시하며, 체험자를 돕는 보조역할자는 소리나 설명으로 체험활동을 돕고 전체 과정은 짝끼리 번갈아가며 수행한다. ① 먼저 전체가 귀를 막고 북소리를 들은후, 울림의 파장을 손을 들어 표시하게 한다.(예비체험) ② 2인1조로 짝을 지어 진행자가 카드에 적힌 지시어를 조당 한사람씩 제시하면 지시어를 제시받은 사람은 남은 한사람에게 입모양으로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은 진행자에게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한다.(정확하게 전달될때까지 수행) - 지시문장 맞추기, 구화게임 ③ 전달활동을 끝낸후 기초수화를 배워 다 같이 실행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9. 전북지역

학교	전주초등학교	전라초등학교
사업내용	· 일 시: 2002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40 · 체험장소: 전주초등학교 통학로, 주변도로, 상가 · 참가대상: 전주초등학교 6학년 1반 · 참가인원: 초등학생 29명 · 체험내용: 시각장애, 지체장애 체험	· 일 시: 2002년 9월 28일(토) 오전 9:00-12:00 · 체험장소: 전라초등학교 통학로, 주변도로, 상가 · 참가대상: 전라초등학교 6학년 3반 · 참가인원: 초등학생 36명 · 체험내용: 시각장애, 지체장애 체험

2002 초등학교 장애체험

평가보고서

1. 평가의 의의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개인 및 사회 경제적 자립능력을 길러 사회의 주류에 통합시키거나 보다 가깝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장애아동을 공교육체제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통합하고자 하는 통합교육은 19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적 관심과 연구 · 지원이 증가하면서 통합지향교육은 보편적 추세로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통합교육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1971년 대구칠성초등학교에 경도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된 이후 완전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교육시대로부터 부분적 통합의 형태를 취한 특수학급 교육시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학급이 공식적으로 통합교육을 위한 장소로 규정되며, 특수학급의 운영에서도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보다는 시간제 특수학급 운영이 상당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전체 특수학급 수의 87.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장애아동의 통합을 위한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통합에 그치고 실질적인 의미의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며, 특히 통합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아동 및 학부모의 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아동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없이 통합을 실시했을 때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일반아동의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아동들에게 무시되고 소외되는 환경 속에서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일반아동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는 크게 장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 개발의 시도로써 장애체험을 선택하여 계획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여 인식면과 행동면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활동을 통하여 장애체험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2. 평가의 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장애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는 장애체험을 비장애아동에게 실시하였을 때 장애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체험을 통해 바라본 통학로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체험을 통해 알아본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아동은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

3. 평가방법

1) 평가 대상

본 평가의 대상은 장애체험을 실시한 전국의 13개교 초등학교 중 대구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5개교(방일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상계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인천 2개교(선학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전주 2개교(전주초등학교, 전라초등학교), 부산 2개교(연천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등 총 11개 학교의 학급에서 실시되었다.

2) 참가인원수

총 인원은 407명이며, 대상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자의 분포〉

학교명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방일초등학교	37	9.0	9.0
대곡초등학교	42	10.3	19.4
상계초등학교	32	7.8	27.2
이수초등학교	39	9.5	36.8
도성초등학교	40	9.8	46.6

학교명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인천선학초등학교	39	9.5	56.2
인천신흥초등학교	41	10.0	66.3
부산연천초등학교	33	8.1	74.4
부산금양초등학교	37	9.0	83.5
전북전주초등학교	29	7.1	90.6
전라초등학교	38	9.3	100
계	407	100	

3) 측정 도구 및 방법

본 평가에서는 장애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설문지 작성

설문지는 체험 후 학생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체험종류 1문항, 통학로의 편리성 1문항, 안정성 1문항, 장애체험로 중 가장 불편했던 점 1문항, 횡단보도의 편리성과 신호등에 관하여 3문항, 생활시설의 편리성 1문항, 가장 불편했던 곳 1문항, 느낀점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9번까지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10번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통계시 계량화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학교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변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들은 SPSS/WIN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학교명을 비롯한 총 11개의 변수를 두었으며, 각각의 독립변수에 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율변수를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 지역에 따라 체험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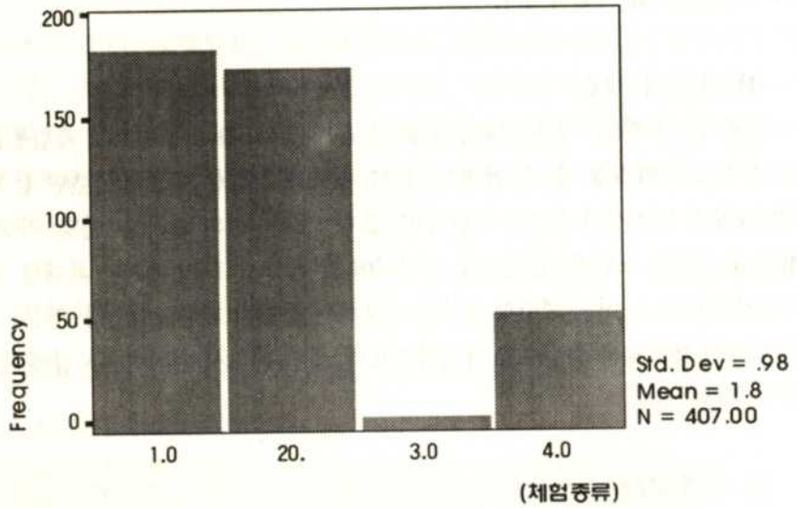
4. 결과 및 해석

1) 장애체험의 종류

〈표 1〉 장애체험의 종류

체험종류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시각장애	179	43.9	43.9
지체장애	169	41.5	85.5
청각장애	6	1.4	86.9
시각, 지체, 언어장애	53	13.0	100
계	407	100	

〔도표 1〕장애체험의 종류



각 장애의 종류는 '1. 시각장애, 2. 지체장애, 3. 청각장애, 4. 시각 · 지체 · 언어장애를 모두 체험한 학생'으로 코드화 하였으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를 체험한 학생이 제일 많다. 다음은 지체장애, 세가지 모두 경험, 청각장애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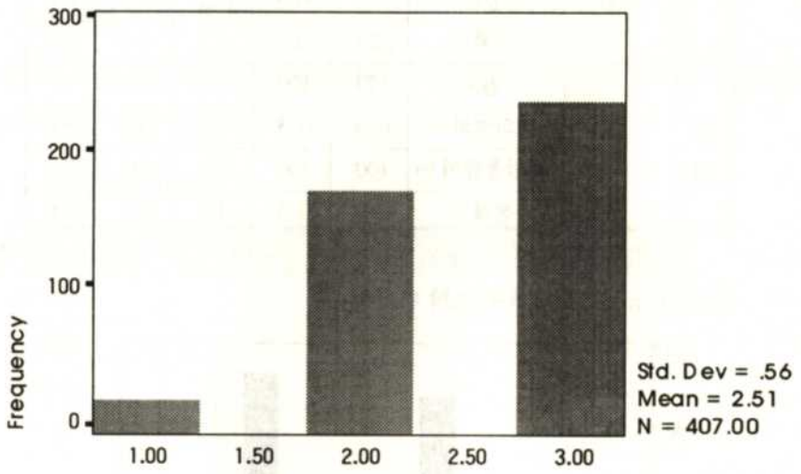
2) 통학로의 편의성

통학로의 편의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1. 아주 편함, 2. 보통, 3. 아주 불편'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통학로의 편의성

편의성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아주편함	12	2.9	2.9
보통	175	42.9	45.9
아주불편	220	54.0	100
계	407	100	

〔도표 2〕통학로의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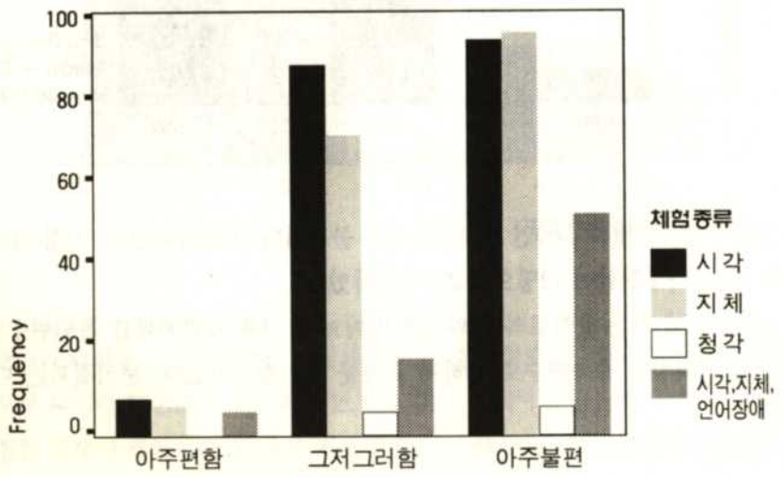
응답자 총 407명의 54%인 220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대답하였고, '보통'이 175명으로 42%, 아주편함이 12명으로 2%가 답하였다.

장애종류에 따른 통학로의 편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체험종류를 독립변수로, 통학로의 편의성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장애체험별 통학로의 편의성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언어	
편의상	아주 편함	빈도	5	4		3	12
		편의성의 %	41.6	33.3		25	100
		체험종류의 %	2.7	2.3		5.6	2.9
		전체 %	1.2	0.9		0.7	2.9
	보통	빈도	83	72	41	61	75
		편의성의 %	47.4	41.1	2.2	9.1	100
		체험종류의 %	46.3	42.6	66.6	30.1	42.9
		전체 %	20.3	17.6	0.9	3.9	42.9
	아주 불편	빈도	91	93	2	34	220
		편의성의 %	41.3	42.2	0.9	15.4	100
		체험종류의 %	50.8	55.0	33.3	64.1	54.0
		전체 %	22.3	22.8	0.4	8.3	54.0
전체		빈도	179	169	6	53	407
		편의성의 %	43.9	41.5	1.4	13.0	100
		체험종류의 %	100	100	100	100	100
		전체 %	43.9	41.5	1.4	13.0	100

〔도표 3〕장애체험별 통학로의 편의성



장애별 통학로의 편의성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9명 중 91명, 50.8%가 아주 불편하다고 대답하였으며, 46.3%인 83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2.7%에 해당하는 5명만이 아주 편하다고 답하여서 시각장애체험자들의 많은 수가 통학로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42.2%에 해당하는 93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대답하였으며, 42.6%인 72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2.3%에 해당하는 4명이 아주 편하다고 답하여서 아주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4명이 보통으로 대답하였으며, 2명이 아주 불편하다라고 대답하였다. 시각 · 지체 · 언어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아주 불편하다고 대답한 학생이 34명으로 64.1%를 차지하였으며, 30.1%인 16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5.6%에 해당하는 3명이 아주 편하다고 답하여서 아주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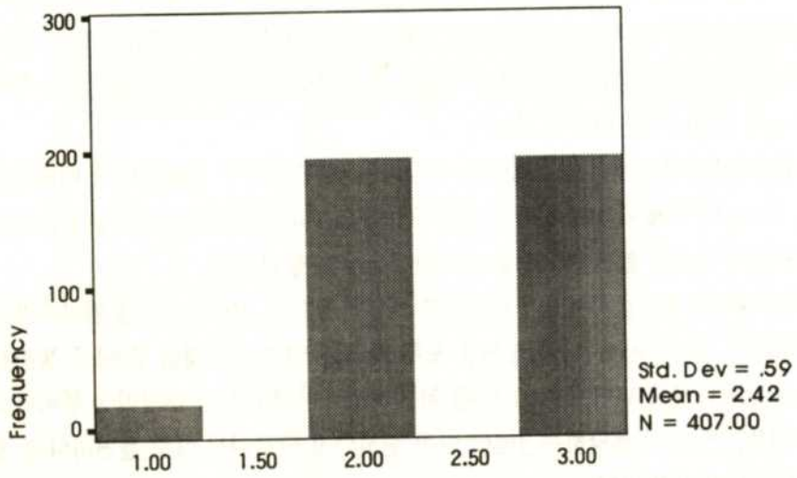
3) 통학로의 안정성

통학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1. 아주 안전, 2. 보통, 3. 아주 불편'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통학로의 안정성

통학로의 안정성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아주안전	21	5.1	5.1
보통	193	47.4	52.5
아주불안	193	47.4	100
Total	4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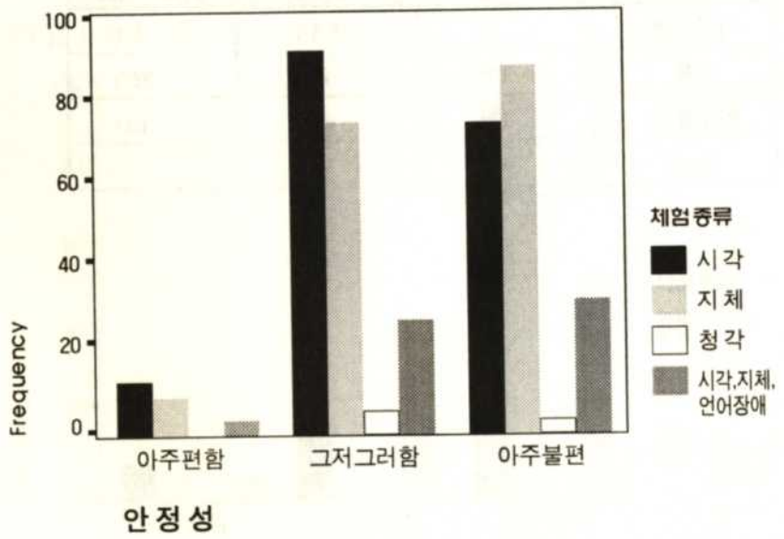
〔도표 4〕통학로의 안정성



응답자 총 407명의 47.42%인 193명이 '아주 불안하다'고 대답하였고, '보통'이 193명으로 동비율을 보였고, '아주 안전하다'가 21명으로 5.15%이다.

장애종류에 따른 통학로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체험종류를 독립변수로, 통학로의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 5〕장애체험별 통학로의 안정성



〈표 5〉 장애체험별 통학로의 안정성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언어	
편의성	아주 안전	빈도	13	6		2	21
		편의성의 %	61.9	28.5		9.5	100
		체험종류의 %	7.2	3.5		3.7	5.1
		전체 %	3.1	1.4		0.4	5.1
	보통	빈도	89	76	4	24	193
		편의성의 %	46.1	39.3	2.0	12.4	100
		체험종류의 %	49.7	44.9	66.6	45.2	47.4
		전체 %	21.8	18.6	0.9	5.8	47.4
	아주 불안	빈도	77	87	2	27	193
		편의성의 %	39.8	45.0	1.0	13.9	100
		체험종류의 %	43.0	51.4	33.3	50.9	47.4
		전체 %	18.9	21.3	0.4	6.6	47.4
전체		빈도	179	169	6	53	407
		편의성의 %	43.9	41.5	1.4	13.0	100
		체험종류의 %	100	100	100	100	100
		전체 %	43.9	41.5	1.4	13.0	100

장애별 통학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9명 중 89명, 49.7%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43%인 77명이 아주 불안하다라고 하였다. 7.2%에 해당하는 13명이 아주 안전하다고 답하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51.4%에 해당하는 87명이 아주 불안하다고 대답하였으며, 44.9%인 76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3.5%에 해당하는 6명이 아주 안전하다고 답하여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4명이 보통으로 대답하였으며, 2명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각 · 지체 · 청각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50.9%에 해당하는 27명의 학생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5.2%에 해당하는 24명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3.7%에 해당하는 2명만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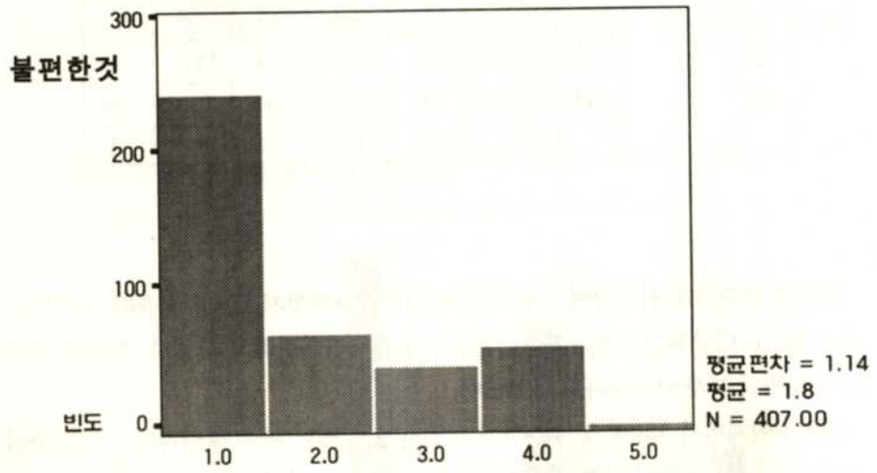
4) 통학로에서 가장 불편한 것

통학로에서 가장 불편한 것에 대한 척도로는 '1. 울퉁불퉁한 보도(턱), 2. 좁은 보도, 3. 보도에 위치한 시설물들(간판, 노점), 4. 기타'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통학로에서 가장 불편한 것

통학로에서 불편한것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울퉁불퉁한보도,턱	235	57.7	57.7
좁은 보도	65	15.9	73.7
보도위 시설물 (간판,주차,노점)	47	11.5	85.2
경사진곳, 계단	57	14.0	99.2
기타(쓰레기, 시선 등)	3	0.73	100
합계	407	100	

〔도표 6〕통학로에서 가장 불편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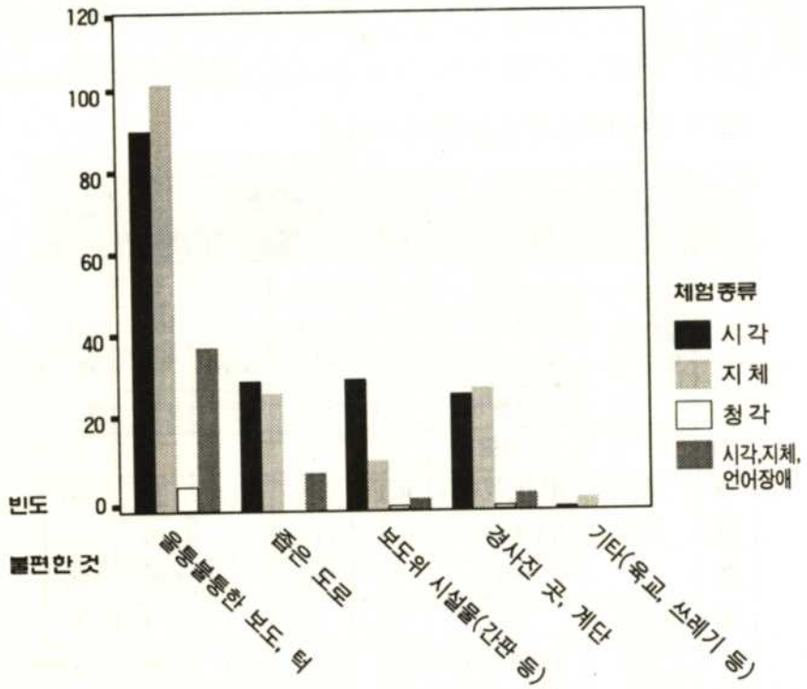
응답자 총 407명의 57.7%인 235명이 울퉁불퉁한 보도, 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5.9%인 65명이 좁은 보도라고 답하였다. 11.5%인 47명이 보도위의 시설물(간판, 주차된 차, 노점 등), 14.0%인 57명이 경사진 곳과 계단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로는 길위의 쓰레기, 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답하였다.

장애체험별로는 가장 불편한 것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종류를 독립변수로, 가장 불편한 것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장애체험별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언어	
장애체험별 불편한 것	울퉁불퉁한 보도, 턱	빈도	91	102	4	38	235
		불편한것의 %	38.7	43.4	1.7	16.1	100
		체험종류의 %	50.8	60.3	66.6	71.6	57.7
		전체 %	22.3	25.0	0.98	9.33	57.7
	좁은 보도	빈도	30	27		8	65
		불편한것의 %	46.1	41.5	.12	.30	100
		체험종류의 %	16.7	15.9		15.09	15.9
		전체 %	7.3	6.6		1.96	15.9
	보도위 시설물 (간판, 주차, 노점)	빈도	32	11	1	3	47
		불편한것의 %	68.0	23.4	2.1	6.38	100
		체험종류의 %	17.8	6.5	16.6	5.66	11.5
		전체 %	7.8	2.7	0.24	0.73	11.5
	경사진 곳, 계단	빈도	25	27	1	4	57
		불편한것의 %	43.8	47.3	1.7	7.01	100
		체험종류의 %	13.9	15.9	16.6	7.54	14.0
		전체 %	6.14	6.63	0.24	0.98	14.0
	기타 (쓰레기, 시선 등)	빈도	1	2			3
		불편한것의 %	33.3	66.6			100
		체험종류의 %	0.55	1.18			0.73
		전체 %	0.24	0.49			0.73
전체		빈도	179	169	6	53	407
		불편한것의 %	43.9	41.5	1.47	13.0	100
		체험종류의 %	100	100	100	100	100
		전체 %	43.9	41.5	1.47	13.0	100

〔도표 7〕장애체험별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



장애체험별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9명 중 91명, 50.8%가 울퉁불퉁한 보도와 턱이라고 답하였으며, 16.7%인 30명이 좁은 보도라고 답하였다. 17.8%에 해당하는 32명이 보도위 시설물, 13.9%인 25명이 경사진 곳, 계단이라고 답하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102명, 60.3%가 울퉁불퉁한 보도와 턱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7명, 15.9%가 좁은 보도라고 대답하였다. 6.5%에 해당하는 11명이 보도위 시설물, 15.9%에 해당하는 27명이 경사진 곳과 계단이라고 답하였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4명이 울퉁불퉁한 보도와 턱이라고 답하였으며, 보도위 시설물, 경사진 곳과 계단을 각각 1명씩 지적하였다. 또한 시각 · 지체 · 청각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71.6%에 해당하는 38명의 학생이 울퉁불퉁한 보도와 턱, 15.09%에 해당하는 8명의 학생이 좁은 보도, 5.66%에 해당하는 3명이 보도 위 시설물이라고 답하였다. 7.54%에 해당하는 4명은 경사진 곳과 계단으로 응답하였다.

5) 횡단보도의 편의성

횡단보도의 편의성에 대한 척도로는 '1. 아주 편함, 2. 보통, 3. 아주 불편'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횡단보도의 편의성

횡단보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무응답	6	1.47	1.47
아주편함	43	10.5	12
보통	213	52.3	64.3
아주불편	145	35.6	100
합계	407	100	

〔도표 8〕횡단보도의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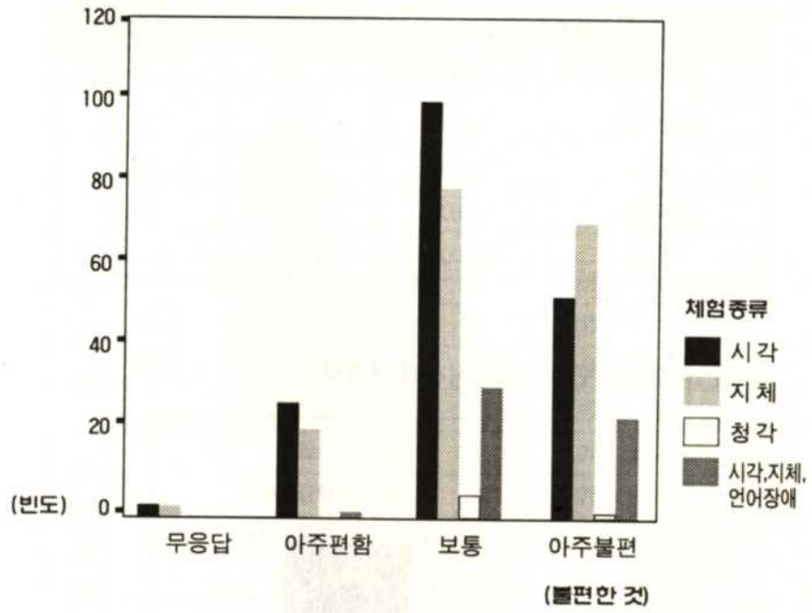
응답자 총 407명의 52.3%인 213명이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35.6%인 145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였다. 10.5%인 43명이 아주 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응답이 6명이다.

장애체험별로 횡단보도의 안정성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종류를 독립변수로, 횡단보도의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장애체험별 횡단보도의 편의성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언어	
횡단보도	무응답	빈도	3	3			6
		횡단보도의 %	50	50			100
		체험종류의 %	1.67	1.77			1.47
		전체 %	0.73	0.73			1.47
	아주 편함	빈도	24	18		1	43
		횡단보도의 %	55.81	41.8		2.31	100
		체험종류의 %	13.40	10.6		1.88	10.5
		전체 %	5.89	4.42		0.24	10.51
	보통	빈도	99	79	5	30	213
		횡단보도의 %	46.47	37.0	2.34	14.0	100
		체험종류의 %	55.30	46.7	83.3	56.6	52.3
		전체 %	24.32	19.4	1.22	7.37	52.3
	아주 불편	빈도	53	69	1	22	145
		횡단보도의 %	36.55	47.58	0.68	15.1	100
		체험종류의 %	29.60	40.8	16.6	41.5	35.6
		전체 %	13.02	16.95	0.24	5.4	35.6
전체		빈도	179	169	6	53	407
		횡단보도의 %	43.94	41.52	1.47	13.0	100
		체험종류의 %	100	100	100	100	100
		전체 %	43.98	41.52	1.47	13.0	100

〔도표 9〕장애체험별 횡단보도의 편의성



장애별 횡단보도의 편의성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9명 중 99명, 55.3%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9.6%인 53명이 아주 불편하다라고 하였다. 13.4%에 해당하는 24명이 아주 편하다고 답하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46.7%에 해당하는 79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40.8%인 69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대답하였다. 10.6%에 해당하는 18명이 아주 편하다고 답하였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5명이 보통으로 대답하였으며, 1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각 · 지체 · 청각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56.6%에 해당하는 30명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1.5%에 해당하는 22명의 학생이 아주 불편하다라고 답하였다. 1명만이 편하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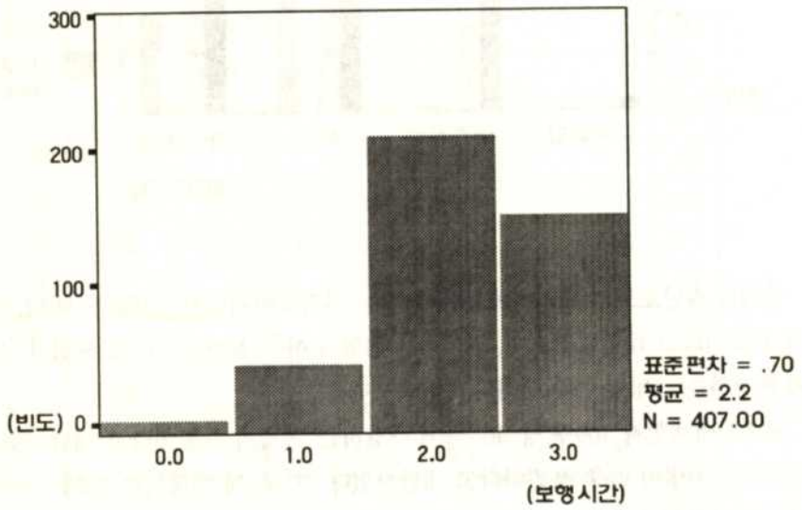
6) 횡단보도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

횡단보도의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척도로는 '1. 아주 넉넉함, 2. 보통, 3. 너무 짧음'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횡단보도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무응답	6.00	1.47	1.47
아주 넉넉	44.00	10.81	12.29
보통	207.00	50.86	63.14
너무 짧음	150.00	36.86	100.00
합계	407.00	100.00	

〔도표 10〕 횡단보도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



응답자 총 407명의 50.8%인 207명이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36.8%인 150명이 너무 짧다고 하였다. 10.8%인 44명이 아주 넉넉하다고 답하였으며, 무응답이 6명이다.

장애체험별로 횡단보도의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종류를 독립변수로,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장애체험별 횡단보도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언어	
횡단보도 보행시간	무응답	빈도	3.00	2.00		1.00	6.00
		보행시간의 %	50.00	33.33		16.67	100.00
		체험종류의 %	1.68	1.18		1.89	1.47
		전체 %	0.74	0.49		0.25	1.47
	아주 넉넉	빈도	29.00	10.00	2.00	3.00	44.00
		보행시간의 %	65.91	22.73	4.55	6.82	100.00
		체험종류의 %	16.20	5.92	33.33	5.66	10.81
		전체 %	7.13	2.46	0.49	0.74	10.81
	보통	빈도	88.00	87.00	4.00	28.00	207.00
		보행시간의 %	42.51	42.03	1.93	13.53	100.00
		체험종류의 %	49.16	51.48	66.67	52.83	50.86
		전체 %	21.62	21.38	0.98	6.88	50.86
	너무 짧음	빈도	59.00	70.00		21.00	150.00
		보행시간의 %	39.33	46.67		14.00	100.00
		체험종류의 %	32.96	41.42		39.62	36.86
		전체 %	14.50	17.20		5.16	36.86
전체		빈도	179.00	169.00	6.00	53.00	407.00
		보행시간의 %	43.98	41.52	1.47	13.02	100.00
		체험종류의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체 %	43.98	41.52	1.47	13.0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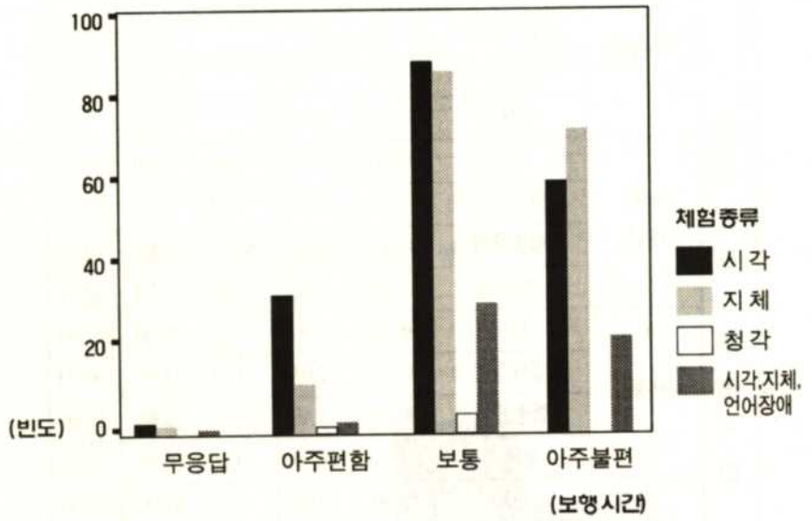
장애별 횡단보도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9명 중 88명, 49.1%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32.96%인 59명이 너무 짧다라고 하였다. 16.2%에 해당하는 29명이 아주 넉넉하다고 답하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51.48%에 해당하는 87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41.4%인 70명이 너무 짧다고 대답하였다. 5.92%에 해당하는 10명이 아주 넉넉하다고 답하였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4명이 보통으로 대답하였으며, 2명이 아주 넉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각 · 지체 · 청각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52.8%에

해당하는 28명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9.62%에 해당하는 21명의 학생이 너무 짧다라고 답하였다. 3명만이 아주 넉넉하다고 답하였다.

〔도표 11〕장애체험별 횡단보도 녹색보행시간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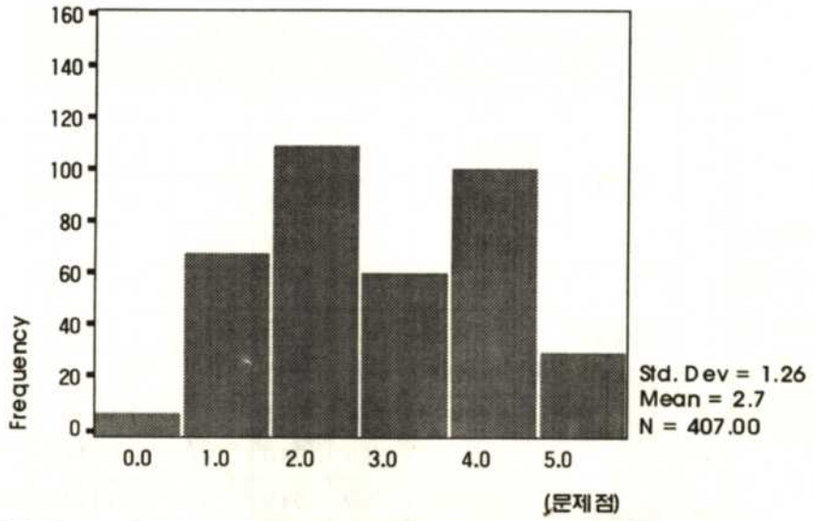
7) 횡단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횡단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느낀 것에 대해 '1. 울퉁불퉁한 횡단보도, 2. 보도와 횡단보도사이의 턱, 3. 짧은 보행시간, 4. 음성신호가 없는 신호등, 5. 기타'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횡단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통학로에서 불편한것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무응답	7.00	1.72	1.72
울퉁불퉁한 횡단보도	66.00	16.22	17.94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	142.00	34.89	52.83
짧은 보행시간	62.00	15.23	68.06
음성신호가 없는 신호등	99.00	24.32	92.38
기타-마구 달리는 차 등	31.00	7.62	100.00
합계	407.00	100.00	

〔도표 12〕횡단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응답자 총 407명의 34.8%인 142명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3%인 99명이 음성신호기가 없는 신호등이라고 하였다. 16.2%인 66명이 울퉁불퉁한 횡단보도, 15.2%인 62명이 짧은 보행시간이라고 각각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로는 마구 달리는 자동차,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 등으로 31%가 응답하였다.

장애체험별로 횡단보도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종류를 독립변수로, 횡단보도의 문제점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